청 렴 서 한 문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주시는 것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다."는 다짐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자발적인 친절을 실천하는 등『청렴이 기본인 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관행과 정으로 생각하여 주고받는 작은 선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청렴행정을 그르치는 큰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학연·지연·혈연 등의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청렴이 기본인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일에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 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관행 등으로 인한 부조리를 경험하셨다면 언제든지 인천시 부조리 신고센터(https://www.incheon.go.kr/IC030501, ☎ 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과 업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